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최종안 '혼합형'

광주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와 관련, 중재기구인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12일 중립적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숙의형 조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핵심 요구안을 모두 수용한 일종의 혼합형으로 최종안의 경우 13일, 공론화 결론 도출은 11월10일로 시한이 못박힌 가운데 시와 시민단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혀 공론화위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논의의 좌장격인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시민단체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4가지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4가지 제안은 ▲이미 선정된 중립적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숙의형 조사 방식을 적용하며,

중립 7명 공론위 구성·숙의형 조사방식 채택 시·시민위 '11월10일까지 결론 내자' 급물살

구체적 기법과 절차는 공론화에서 결정 ▲11월10일까지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광주시장에게 권고할 것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 양측이 조건없이 수용할 것 등이다.

중립인사 7명으로만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중립 7인제'는 시가 요구해온 사안이고 '숙의형 조사'는 시민단체 측에서 시종일관 주장해온 방식이다.

중립인사 7인은 법률가 1명, 조사통계 전문가 1명, 갈등관리 전문가 2명, 소통전문가 2명, 위원장 1명 등이다. 숙의형 조사는 300인 숙의조사 방식이 유력하다.

최 위원장은 "4가지 제안을 내일(13일)까지 수용하지 않거나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익위원회의 공론화는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시민단체 양측에 '24시간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최 위원장은 "2000-3000명의 시민을 우선 뽑은 뒤 지역, 연령, 도시철도 찬반 여부 등을 골고루 반영해 최종 300명 가량을 선발해 2주일 정도의 숙의과정과 1박2일 합숙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1월10일까지는 결론을 내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의제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를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시철도를 지하철 방식으로 할 지, (트램, BRT 등) 다른 대안을 택할지 등 기본적인 의제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신분 노출과 로비 우려 등을 철저히 차단한 뒤 성공적인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이같은 제안에 시와 시민모임 모두 일단 긍정적인 입장여서 공론화위 구성과 관련 절차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용성 시장과 대화 과정에서 이 시장이 숙의형 조사 방식에 대해 전향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고 시 고위 관계자도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 이 정도 선에서 수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수용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시민모임 측은 "시가 중립위원 7명에 양측 관계자 2명씩을 더한 '7+4 공론화위원회' 안에 합의하고도 불연 이를 파기한 바 있어 과연 시장이 진정성 있게 숙의조사에 나설지 의구심이 들고 말바꾸기를 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종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이나 백지화' 논란을 비롯해 운행 노선, 건설방식, 차량 형식 등을 놓고 지리한 논쟁을 벌여 현행 저심도 경전철 방식이 확정됐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청남~수완~시청 구간의 41.9km 순환선을 오는 2025년까지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설계상 예상 소요 사업비는 235549억원이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며 즐거차게 재검토를 요구해 왔고 결국 시민공론화까지 이끌어냈다.

시민모임은 노면 전차인 트램(TRAM)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서은홍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추석명절을 맞아 12일 오후 목포 자유시장에서 중진공·소진공 지역본부, 여경협 전남지회, 전남지역신보 등 유관기관과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13일(광주 말바우시장), 18일(순천 역전시장), 19일(광주 대인시장) 등 릴레이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추석명절을 맞아 12일 오후 목포 자유시장에서 중진공·소진공 지역본부, 여경협 전남지회, 전남지역신보 등 유관기관과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13일(광주 말바우시장), 18일(순천 역전시장), 19일(광주 대인시장) 등 릴레이로 진행된다.

동구, 광주 최초 치매안심센터 개소

광주 동구는 지난 12일 광주지차구 중 최초로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실천 1호인 치매안심센터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치매상담 및 검진,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가족교실,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 치매환자와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구는 이날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해 박주선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오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강좌도 실시한다.

서구, 홀몸 노인 무한돌봄 실시

광주 서구청이 11일 희망플러스 '무한돌봄' 사업을 실시했다.

10일 서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8개 기관 대표들이 모여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여 돌봄세대를 지원하는 맞춤형사업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무한돌봄사업은 매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무한돌봄사업팀은 홀몸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희망을 지원하며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 추석 선물 주고받기 절대 금지

광주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명절 선물 안주고 인받기' 운동을 펼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 공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27일까지를 '명절 선물 안주고 인받기'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 직원들은 직원 상·하간은 물론이고 동료 간에도 선물을 주고받지 않으며,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식사나 선물,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도 절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전달된 선물을 스스로 반납하는 선물 반송 신고센터를 운영,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건전한 명절 보내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구 시니어합창단, 31일 정기 공연

광주 북구는 오는 1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북구 시니어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선아 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연주회는 김근형 씨의 피아노 선율과 함께 시니어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일상에 지친 주민에게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한다.

공연은 '하 가을인가' '세아세아 파랑새야' '강원도아리랑' 등 3곡의 혼성합창을 시작으로 '스위니' '사랑의 찬가' '아리랑'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시니어합창단의 멋진 화음으로 공연장을 채운다.

북구 시니어합창단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2008년 7월 만65세 이상 남녀혼성 60명으로 창단했다.

광산구-한전 광산지사,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약

12일 광주 광산구와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지사장 노문철) 구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약은, 다양한 사회 조직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광산구의 사업 어떤 기업·기관·단체가 나눔 의사를 밝히면 광산구가 맞춤형 건설물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나눔으로 이어가도록 돕는 내용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나아가 △공익분야 관련 업무지원 △어려운 이웃 추천과 지원을 위한 교류 △기관 간 사회공헌 및 정령분야 우수사례 정보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임형택 기자

2019년산 마늘·양파 과잉생산 우려

2019년산 마늘과 양파의 과잉생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산 마늘과 양

파 재배의향 면적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마늘은 10~12%, 양파는 7~14% 늘 것으로 전망됐다.

마늘, 양파 주산지인 전남, 제주

의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줄어든 반면 주산지 외 충청과 영남, 강원 등에서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가공 등을 통해 소비량이 늘지 않을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전남도는 2018년산 양파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49억 원을 들여 조성종과 중만생종 양파 237ha의 면적을 사전에 조

절하고농협을 통해 비계약물량 2만톤 수매하는 등 가격 및 수급안정대책에 나선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에서도 조금만 과잉되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을 유념해 재배면적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